

Culture Information

: 역사에 길을 묻다



역사와 함께 하며
미래를 담은 그릇

도 자 기



도자기는 인간이 사용한 가장 오래된 소재 중 하나로 지금도 우리 일상에서 컵과 식기 등으로 애용되고 있다.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처럼 기능성 좋은 신소재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여전히 생활 한가운데 자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 인류의 역사와 함께 걸어온 도자기의 위대한 생명력에 대해 알아보자.

글 편집실



인류의 정착 생활에 기여하다

도자기는 점토를 물로 반죽해 말린 다음 불에 구우면 탄생한다. 이런 제작법은 인류가 불을 발견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했을 것이다. 때문에 도자기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용도가 다채롭고 가치도 천차만별이라 한때 도자기의 발달은 한 문명의 성숙도를 재는 유용한 척도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도자기는 중국 후난성의 1만 8천 년 된 토기다. 또한 우리나라 제주 고산리 유적과 일본 규슈 지방에서 1만 2천 년 전에 토기가 발견되는 등 동아시아에서 도자기는 일찍

부터 쓰여 왔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8천 년 전에 토기가 등장한 것을 생각하면 크게 앞섰다고 할 수 있다.

도자기의 등장으로 인류는 정착 생활이 가능해졌다. 보관 용기를 만들어 야생동물로부터 식료품을 보호하고 음식을 식기에 담아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조리기구가 생기면서 불을 이용해 요리를 즐기게 됐다. 유목 생활을 하며 야생동물을 사냥하던 인류가 농경사회로 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현재 사용하는 다양한 도자기도 재질과 형태 등에서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비슷한 점이 많다.



도자기, 문명과 함께 진화하다

문명과 도자기는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발전했다. 흙으로 만든 최초의 질그릇은 물을 담는 순간 금세 녹아버렸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했다. 인류는 좀 더 실용적인 그릇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탐색을 거듭한 결과 그릇에 높은 온도의 열을 가하면 점토의 조직이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도자기라는 이름도 800~1000℃에서 구운 '도기', 1100~1400℃에서 구운 '자기'를 더한 말이다. 가마가 발명되면서 도자기는 혁신적인 발전을 거듭한다. 1000℃가 넘는 열을 이겨낸 도자기는 물을 담아도 흙이 풀어지거나 물이 새지 않았다. 도자기는 이제 음식의 보관을 넘어 왕의 권위를 드러내거

나 제사를 지내는데 활용되었다. 진시황릉의 병마용은 권위를 드러내는데 쓰인 대표적인 도기다. 이후 1300℃ 이상 온도를 가둘 수 있는 중국의 가마와 중동에서 건너온 유약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아는 자기가 완성되었다.

도기는 빛이 통과되지 않고 열은 갈색을 띄며 두껍다. 두드리면 둔탁한 소리가 나고 금이 가지 않는다. 반면, 자기는 하얗고 매끄러우면서 단단하다. 금속처럼 청아한 소리가 나고 표면에 요철이 적어 씻기 쉽다. 이런 특징 때문에 자기에 아름다운 모양이 더해져 다도(茶道)와 같은 고급 식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 시작된 차 문화는 도자기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오직 차를 즐기기 위한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차 문화 초창기에는 황갈색을 띄던 찻물을 돋보이게 하고자 보색인 청자가 유행했다. 이후 명나라와 청나라를 거치며 다양한 종류의 차가 등장했고 이는 차 고유의 빛깔을 온전하게 볼 수 해주는 백자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다

인류는 순백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 오랜 세월 노력했다. 하얀 그릇은 음식의 색채를 선명히 보여줘 미적 기능을 높이고 식욕을 자극한다. 현대에 사용되는 식기가 대부분 하얀색인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상감청자의 영향으로 청자를 만든 기술을 높게 보고 조선시대 백자를 낮춰 보는 경향이 있었다.

백자의 빛깔을 내려면 우선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같은 강옥이어도 크로뮴을 포함한 광물은 붉은 루비가 되고 철을 포함하면 푸른 사파이어가 되듯, 철분을 포함한 재료로 자기를 만들면 푸른빛 청자가 된다. 반면 백자는 중금속 이온을 거의 포함하지 않은 중국의 고령토를 사용해야 백색의 표면을 갖게 된다.

온도에서도 백자는 청자보다 높은 온도를 필요로 한다. 청자는 1100℃ 이상을 유지해야 만들 수 있는데 반해 백자는 1400℃ 이상이어야 제작할 수 있다. 표면에 색이나 무늬를 입히기도 힘들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다. 임진왜란에 국내 도공들이 대거 일본으로 끌려간 것도 우리 백자의 가치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은 도자기의 강국으로 부상하며 문화가 융성하기 시작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도자기는 세라믹으로 불리며 이전보다 훨씬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열과 물에 강한 천연소재로 세면기, 변기, 칼 등 생활 전반은 물론 정밀기계, 반도체 등으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미군들이 사용하는 방탄 플레이트나 우주 왕복선의 표면도 세라믹으로 만든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세라믹이 철기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인류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도자기의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이다. ☺

